

# 한국 베이비 부머의 주관적 기대와 자산축적

우석진 · 이윤수\*

## I. 개요

한국 전쟁 이후 1955년과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는 생애 노동시장의 마지막 시점인 은퇴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학의 생애주기 모형(lifecycle model)에 따르면, 미래에 대해서 합리적 전망을 하고 있는(forward-looking) 소비자 혹은 가구의 경우 소비결정과 더불어 저축, 즉 자산축적 결정을 하게 된다. 소득이 생애의 다른 시기보다 많을 경우 자본축적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게 된다. 이러한 자산축적은 미래의 생존확률(survival probability), 기대 노동소득, 사적/공적 연금, 인플레이션, 은퇴연령,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소요(needs), 기타 등등을 고려하면서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도록 결정된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축적 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의 은퇴 및 정부정책의 기대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본축적 결정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관측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젊은 시기를 지나 은퇴시기로 접어들면서 교육시장, 직업 선택, 주택시장, 자산시장, 사회보장 등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Poterba, 2001; Abel, 2001; Bohn, 2001; Brooks, 2002). 그런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축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게 된다.

한국고령화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총 자산은 1억 2,000만 원 수준이었다. 구성면에서는 부동산이 80% 수준으로 이전 세대에 비해 금융자산으로 다변화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베이비 부머의 부채는 약 5,200만 원으로 이전 세대의 수준과 유사하였다. 분위회귀분석을 통

\* 우석진=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genoswoo@gmail.com), 이윤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ylee@sogang.ac.kr).

해 개인총자산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결과 학력, 성별, 자녀수는 어떤 분위기를 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할을 하고 있고, 상위 분위로 갈수록 총자산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반면 노동공급 여부는 중간 분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하위나 상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찾을 수는 없었다. 주관적 기대의 경우, 좀 더 긴 수명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에 자본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통상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노후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장 정도는 개인의 자산축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베이비 부머의 자산과 소득구성을 살펴 보았고, 제Ⅲ장에서는 개인총자산과 순자산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미래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자산축적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제Ⅳ장은 논의의 결론을 맺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Ⅱ.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현황

### 1.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와 특성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 부머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KLoSA 고령화패널 1차년도(2006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KLoSA는 2006년부터 45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는 패널자료이다. 제주도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6,171개 가구에 거주하는 10,254명을 패널로 구축하고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만족도 등 광범위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표 1> KLoSA 중 베이비 부머 세대 비중

	빈 도	비 중	누 적
베이비붐 이전 세대	7,822	76.28	76.28
베이비붐 세대	2,432	23.72	100
전 체	10,254	100	

자료 : KLoSA(2006).

<표 1>은 전체 KLoSA 응답자들 중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10,254명의 응답자 중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2,432명으로 약 23.7%에 해당한다.

베이비붐 이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요약은 <표 2>에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성별 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 두 그룹 모두 남성이 약 43% 정도 포함되어 있다. 연령은 이전 세대가 평균 66세이고 베이비붐 세대가 평균 48세 정도이다. 즉 평균연령이 18세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에 유의를 하면서 다른 요약통계량도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혼은 베이비붐 세대가 약 90%로 이전 세대에 비해서 16%p 정도 높다. 자녀수는 이전 세대가 3.2명으로 상당히 많았던 데 비해, 베이비붐 세대는 1.99명으로 대체출산율(replacement rate)인 2.1보다도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노동공급(현재 노동하고 있는 경우)의 경우 이전 세대는 약 30%가 노동공급을 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는 64%로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참가율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평균 참가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연령이 48세로 아직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혹은 완전은퇴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의 경우 이전 세대의 경우 2.8%가 특수직 연금을, 9.4%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아직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만이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표 2> 세대별 요약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베이비붐 이전 세대		베이비붐 세대	
성별(남성=1)	0.437	0.496	0.430	0.495
연령	65.994	9.155	47.933	1.986
결혼=1	0.740	0.439	0.898	0.303
자산소득	93.506	1051.416	132.823	1275.425
자녀수	3.282	1.576	1.993	0.813
노동공급	0.298	0.457	0.640	0.480
특수지역 연금수혜=1	0.028	0.164	0.000	0.020
국민연금 수혜=1	0.094	0.291	0.004	0.061
관측수	7822		2432	

자료 : KLoSA(2006).

## 2.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현황

개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나타내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개인총자산이다. 개인총자산은 부동산총자산과 금융총자산의 합으로 구하였다. 부동산총자산 중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상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스스로 보고한 거주주택의 가치를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자산은 개인의 소유인 동시에 부부가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도 다수이기 때문에, 가구총자산과 배우자 외의 가구구성원들의 자산을 제외한 부부총자산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자산보유 현황은 <표 3>에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sup>1)</sup> 이전 세대의 경우 개인총자산은 1억 2,000만 원이고, 베이비 부머 세대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1억 2,000만 원 수준으로 연령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인총자산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3>을 통해 분석했던 소득현황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소득이 이전 세대보다 컸던 점을 상기해 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연간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자산의 비중보다 높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이전 세대는 1.5억 원 정도 가지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는 이보다 3.5% 많은 1.55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주택가치만 한정하여 살펴보면, 이전 세대는 약 77.8%가 거주주택의 가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73.5%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거주주택의 가치가 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다른 형태의 부동산의 비중을 베이비붐 세대가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자산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2,695만 원으로 이전 세대의 1.5배 이상이다.

<표 3>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이전 세대			베이비붐 세대		
개인총자산	5556	12445.1	26013.7	2000	12258.1	24478.3
부동산총자산	4159	14962.4	27633.7	1269	15492.8	25884.7
거주주택가치	3867	11628.3	18238.3	1138	11397.1	15154.2
금융총자산	3306	1755.4	5089.0	1478	2695.8	7578.7
보험총자산	427	1641.3	3152.5	578	1961.2	4591.8
사업체농장자산	4	8875.0	6060.5	3	24166.7	5204.2
기타자산	1409	764.9	1178.5	915	873.0	1829.3
가구총자산	7146	18846.5	34028.8	2340	20904.2	33625.6
부부총자산	6685	17350.0	33156.6	2289	19606.4	33257.1

자료 : KLoSA(2006).

1) 자산보유 여부에 조건하여 평균을 계산하였다.

<표 4>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구성 현황

	비 중		
	이전 세대(A)	베이비붐 세대(B)	차이(A-B)
개인총자산	100.00	100.00	0.00
부동산총자산	90.00	80.19	-9.81
거주주택가치	65.03	52.90	-12.13
금융총자산	8.39	16.25	7.86
보험총자산	1.01	4.62	3.61
사업체농장자산	0.05	0.30	0.25
기타자산	1.56	3.26	1.70

자료 : KLoSA(2006).

개인 혹은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산구성(portfolio)이 매우 중요하다. 자산구성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세대별로 개인총자산에서 각 자산 항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계산하였다. 이전 세대의 경우 부동산총자산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거주주택은 총자산 중에서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자산을 포함한 나머지 자산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부동산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로 아직 높기는 하지만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약 10%p 감소하였다. 대신 금융총자산의 비중이 8.3%에서 16.3%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3 베이비붐 세대의 부채 현황

지금까지는 자산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자산취득은 개인 혹은 가구가 보유한 현금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부동산의 경우 근원이 되는 자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자산구조와 동시에 개인 혹은 가구의 부채구조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절에서는 개인의 부채를 대변해 주는 변수로 개인총부채를 이용하였다. 개인총부채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거주주택에 대한 대출금 현황과 거주주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세 혹은 월세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을 포함하였다.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구단위의 부채수준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총부채를 포함하였다. 전반적인 부채 현황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개인부채는 이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모두 5,200만 원 정도로 큰 차이는 없었다. 가구단위에서 집계한 가구총부채도 6,000만 원대로 거의 대동소이하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

<표 5> 부채 현황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이전 세대			베이비붐 세대		
개인총부채	1641	5261.421	10649.27	747	5259.643	6825.502
거주주택 대출	527	4431.873	14028.59	274	4183.029	4786.955
전월세 보증금	450	4164.503	4987.647	64	4639.375	5089.17
가구총부채	2593	6341.325	12966.56	1107	6537.481	9175.145

자료 : KLoSA(2006).

는 주택에 대한 대출 역시 이전 세대가 4,431만 원, 베이비붐 세대가 4,183만 원으로 유사하였다. 자산수준에서는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있지만 부채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채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통상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거주주택과 관련된 부채는 30%에 못 미치고 있었다. 두 그룹 모두 생애주기의 초중반에 대출을 통해 거주주택을 장만했지만, 생애주기 중후반에는 부채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보다는 다른 형태의 부채가 많은 점이 특이하다.

#### 4 베이비붐 세대의 순자산

개인의 의사 결정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순자산이다. 자산이 많다고 해도 부채가 많으면, 결국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자산을 처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여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이전 세대의 개인순자산의 평균은 1억 600만 원 정도이고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우 9,900만 원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구순자산의 경우도 이전 세대는 1억 6,000만 원,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우 1억 7,000만 원으로 다소 많기는 했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개인순자산을 1억원 정도라고 보고, 무위험 자산의 연간 이자율을 4%라고 가정하면 약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게 되었을 때 대략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은퇴 후 모든

<표 6> 베이비붐 세대의 부채구성 현황

	비 중		
	이전세대(a)	베이비붐 세대(b)	차이(a-b)
거주주택 대출	27.05	29.17	-2.12
전월세보증금	21.71	7.56	14.15

자료 : KLoSA(2006).

<표 7> 순자산 현황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이전 세대			베이비붐 세대		
개인순자산	5710	10597.36	24820.13	2071	9940.7	23163.48
가구순자산	7199	16423.62	32762.68	2367	17608.26	32535.72

자료 : KLoSA(2006).

자산을 유동화하였을 경우 총 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의 연간 소득이 약 2,400만 원 정도 되니까, 은퇴 후 소득은 대략 33.3% 정도 된다.

### III. 자산 결정요인과 주관적 기대

#### 1. 주관적 기대와 자산축적

베이비붐 세대의 주관적 기대가 소비평탄화를 위한 자산축적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분석을 이용하였다. 총자산과 순자산의 분포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듯이 자산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해당 종속변수의 0.1, 0.25, 0.5, 0.75, 0.9-분위에서 분위회귀분석을 하였다.<sup>2)</sup>

고령화패널에서는 주관적 기대에 직접 질문하고 있는 문항들이 있다. 예를 들면, 수명에 대한 기대, 은퇴시점에 대한 기대, 정부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0~100 스케일로 답을하도록 되어 있다. 본장에서는 주요 자산 결정요인을 통제한 후에 이러한 주관적 기대가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축적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수명에 대한 기대가 자산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생애주기가 길어질수

2) 분위회귀의 추정은 특정 분위,  $\rho$ 가 주어졌을 때 아래와 같은 최적화 문제를 풀면 얻을 수 있다.

$$\hat{\beta}(\tau) = \underset{\beta \in R^p}{\operatorname{argmin}} \sum_{i=1}^n \rho_{\tau}(y_i - q(y_i|X_i, \tau))$$

$$\rho_{\tau}(z) = z(\tau - I(z < 0)), 0 < \tau < 1$$

특별히  $\rho = 0.5$ 인 경우에는 LAD(least absolute deviation) 추정치가 된다(분위회귀함수의 추정치에 대한 성질은 Koenker & Hallock(2001)을 참조).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는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8〉 주관적 기대 변수 요약통계량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기대수명에 대한 기대(75세 이상)	2430	73.47	23.24	0	100
국가의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기대	2432	29.65	24.09	0	100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	2432	40.70	21.68	0	100

자료: KLoSA(2006).

록 좀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한다는 점은 생애주기 모형을 통해 분명히 예측된다. <표 9>와 <표 10>은 베이비붐 세대의 수명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수명에 대한 주관적 기대는 현재 연령이 64세 이하인 경우 “나는 75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질문의 답변을 이용하였다. <표 9>와 <표 10>의 추정결과는 총자산으로 보나 순자산으로 보나 일관성 있게 좀 더 오래 살 기대를 가지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좀 더 많이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가의 노후보장 정도에 대한 기대가 자산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국민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노후소득 보장강화 정책 등을 통한 정부의 노후생활 보장 정도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자산축적은 구축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예측은 <표 11>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의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 정도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총자산 수준은 어떤 분위기를 살펴봐도 낮다. 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동일한 변수가 순자산에 미친 효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국가에 대한 기대 변수의 부호가 양(+)으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실증적으로 보면, 국가의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에 대한 기대가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자본축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이 베이비붐 세대의 부동산 자산축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4>가 보여주고 있듯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구성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이 전반적인 자산축적 수준과 자산 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추정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총자산과 순자산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효과의 크기는 상위 분위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은 전체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때의 추정결과이다. 상위 분위기를 제외한 나머지 분위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부동산 자산축적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 0.9-분위만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부동산 전망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축적에 미치는 효과는 상위 분위기를 통해서만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수명에 대한 기대가 총자산에 미친 효과

	0.1-분위	0.25-분위	0.5-분위	0.75-분위	0.9-분위
수명 기대	0.165 [0.320]	3.750*** [1.307]	17.60*** [3.954]	51.69*** [10.39]	92.14*** [30.90]
연령	0.826 [1.761]	37.50** [17.65]	156.0*** [54.78]	569.4*** [154.3]	956.4** [436.8]
학력	2.569 [5.978]	87.50*** [20.88]	304.7*** [41.28]	884.5*** [113.0]	1921*** [244.1]
남성=1	237.3*** [78.11]	1825*** [238.4]	5532*** [545.7]	8467*** [827.5]	11472*** [2328]
결혼=1	207.3** [90.91]	400 [311.0]	-126 [347.0]	93.1 [644.0]	420.1 [2310]
자녀수	5.229 [13.20]	150.0*** [56.50]	448.0*** [157.0]	897.6*** [293.0]	2178** [925.6]
노동공급=1	8.532 [19.33]	300*** [69.54]	820.0*** [205.5]	1923*** [728.2]	-896.1 [2050]
상수	-300.6* [161.1]	-3625*** [1172]	-11786*** [3007]	-36937*** [7739]	-59896*** [20566]
관측치	2430	2430	2430	2430	2430

주 :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자료 : KLoSA(2006).

<표 10> 수명에 대한 기대가 순자산에 미친 효과

	0.1-분위	0.25-분위	0.5-분위	0.75-분위	0.9-분위
수명 기대	26.83*** [8.580]	12.30*** [3.955]	24.89*** [6.364]	54.04*** [13.59]	132.5*** [30.60]
연령	18.25 [50.39]	63.3 [39.07]	207.5*** [77.08]	465.0*** [170.5]	1179** [528.0]
학력	79.17** [33.69]	135.2*** [31.21]	370.8*** [47.17]	960.8*** [108.0]	2110*** [266.4]
남성=1	118.8 [286.9]	1390*** [216.1]	4594*** [450.7]	6889*** [921.9]	7122*** [2167]
결혼=1	336.5 [529.5]	440.9 [324.1]	-324 [428.4]	-249 [756.1]	2445 [3199]
자녀수	-28 [106.9]	75.58 [119.4]	431.9** [202.9]	824.8** [416.8]	1853* [1098]
노동공급=1	255.8 [220.2]	246.2* [144.6]	339.4 [283.3]	1056 [730.6]	-1702 [1979]
상수	-4644* [2705]	-5734*** [2210]	-14657*** [3956]	-31780*** [8218]	-75004*** [25779]
관측치	2069	2069	2069	2069	2069

주 :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자료 : KLoSA(2006).

<표 11>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가 총자산에 미친 효과

	0.1-분위	0.25-분위	0.5-분위	0.75-분위	0.9-분위
국가에 대한 기대	-4.66E-10 [0.0416]	-1.19E-08 [0.938]	3.891 [3.818]	-4.727 [14.88]	-35.5 [43.53]
연령	1.63E-08 [0.927]	27.78 [20.31]	144.5*** [54.42]	461.7*** [172.3]	834.1* [434.0]
학력	1.667 [6.967]	81.48*** [18.61]	327.7*** [48.70]	896.2*** [109.6]	1917*** [259.7]
남성=1	220.0** [102.4]	1794*** [269.5]	5455*** [504.1]	8084*** [948.5]	12011*** [2311]
결혼=1	200.0* [104.7]	416.7 [267.4]	56 [322.4]	762.5 [608.9]	1436 [2527]
자녀수	5 [16.01]	144.4*** [49.54]	500.1*** [142.5]	1060*** [326.6]	2077** [1044]
노동공급=1	5 [22.72]	316.7*** [78.85]	1050*** [213.9]	2324*** [667.1]	-142.7 [1742]
상수	-230 [154.7]	-2844** [1196]	-10702*** [2956]	-29035*** [8599]	-47904** [21608]
관측치	2432	2432	2432	2432	2432

주 :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자료 : KLoSA(2006).

<표 12>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가 순자산에 미친 효과

	0.1-분위	0.25-분위	0.5-분위	0.75-분위	0.9-분위
국가에 대한 기대	3.913 [2.929]	8.182 [7.249]	0.441 [11.95]	-10.87 [40.19]	132.5*** [30.60]
연령	48.91 [35.35]	222.7*** [69.67]	569.5*** [150.7]	1153*** [445.6]	1179** [528.0]
학력	147.0*** [31.69]	401.8*** [58.63]	993.0*** [119.7]	2095*** [295.4]	2110*** [266.4]
남성=1	1343*** [248.1]	4256*** [479.3]	7090*** [1001]	8883*** [2423]	7122*** [2167]
결혼=1	547.0* [329.7]	30.57 [425.1]	553.7 [704.1]	1203 [2670]	2445 [3199]
자녀수	142.1 [102.3]	440.8** [191.9]	1048*** [372.2]	2403** [998.3]	1853* [1098]
노동공급=1	244.6* [125.8]	738.8*** [262.9]	1423** [674.7]	-1092 [2436]	-1702 [1979]
상수	-4580** [1971]	-14697*** [3640]	-34527*** [7438]	-64647*** [22090]	-75004*** [25779]
관측치	2071	2071	2071	2071	2069

주 :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자료 : KLoSA(2006).

<표 13>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가 부동산 자산에 미친 효과

	0.25-분위	0.5-분위	0.75-분위	0.9-분위	평균회귀
부동산에 대한 기대	0 [0]	0 [0.207]	22.41 [14.42]	100.00** [39.10]	32.15* [18.32]
연령	0 [0]	0 [3.801]	380.7** [163.5]	363.6 [418.7]	215.4 [202.9]
학력	0 [0]	0 [5.646]	582.1*** [110.1]	1485*** [249.5]	1090*** [129.5]
남성=1	500.0** [204.3]	6500*** [453.6]	8842*** [971.2]	12091*** [2214]	5550*** [927.8]
결혼=1	0 [80.05]	0 [150.3]	-179.2 [643.1]	1455 [1910]	2044 [1369]
자녀수	0 [0]	0 [18.67]	649.3* [332.3]	1364 [916.0]	738.1 [508.9]
노동공급=1	0 [0]	3.70E-10 [23.54]	2635*** [660.3]	545.5 [1694]	1449 [933.4]
상수	0 [80.05]	-5.25E-10 [292.2]	-23671*** [8085]	-28000 [21503]	-22682** [10138]
관측치	2432	2432	2432	2432	2432

주 :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0.1-분위는 부동산 자산이 거의 관측되지 않아 추정하지 않았음.

자료 : KLoSA(2006).

####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준비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산 현황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자본축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한국고령화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순자산은 9,900만 원으로 공적연금을 합한다고 해도 은퇴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가 아니었다. 특히 순자산의 분포를 살펴보면 75%의 베이비 부머의 순자산이 1억 1,000만 원이 안되기 때문에 은퇴후 소득수준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자산의 80%가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 있어 부동산시장 침체시에 은퇴후 자산가치가 자산가격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주관적 기대의 경우, 좀 더 긴 수명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에 자본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통상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노후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장 정도는 개인의 자산축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위와 같은 추정결과는 초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고령노동자 특히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향후 정책에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가 노후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빈곤의 양극화가 우려된다. 예전과는 달리 부양할 자녀가 적기 때문에 세대 간 이전을 통해 은퇴소득을 확보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주된 일자리로부터 퇴직하고 나서 단시간 내에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현상이 일반적이 될 것이다(우석진, 2010). 따라서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완전은퇴 후의 소득보장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전 세대보다는 완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부동산 자산의 집중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은퇴후 소득이 매우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 자산을 안전한 은퇴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모기지 같은 제도를 좀 더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KLI**

#### <참고문헌>

- 우석진(2010) 「한국 고령노동자의 부분은퇴와 노동시장 복귀」, 『한국노년학』 30(2), pp.499~513.
- Poterba, James(2001), "Demographic Structure and Asset Retur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4), pp.565~584.
- Abel, Andrew(2001), "Will Bequests Attenuate the Predicted Meltdown in Stock Prices When Baby Boomers Reti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4), pp.589~595.
- Bohn, Henning(2001), "Social Security and Demographic Uncertainty: The Risk Sharing Properties of Alternative Policies," in J. Y. Campbell and M. Feldstein (eds.), *Risk Aspects of Investment-Based Social Security Refor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203~241.
- Brooks, Robin (2002), "Asset-Market Effects of the Baby Boom and Social-Security Reform,"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2(2), pp.402~406.